요셉의 밤, 아침<창세기 41:9-24>

*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하루 중 어느 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의 밤, 새벽, 아침으로 진행되는데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요셉의 밤(창세기37, 39장)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자신들을 찾아 간 형들의 손에 의해 웅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의로움으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있었던 3년의 삶은 점점 깊어지는 밤입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웅덩이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억울함, 물질, 건강 등의 웅덩이가 있고 착하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꼬이는 삶, 엉뚱한 배반과 결과로 오는 삶의 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더 깊은 밤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가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주어 감옥에서 꺼내주길 부탁하고(40:14-15) 기다리는 그 시간 2년은 희망이 보이는데 절망인 상태인 희망고문의 시간으로 최고의 깊은 밤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자리로 회복 되어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창세기40:23)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향해 미움도 증오심도 가지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밤에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욥기35:10) 우리가 어둡고 깊은 밤 웅덩이에 빠진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이 때 부르는 노래가 밤에 부르는 노래이며 이 때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밤에 드리는 기도이며 예배, 밤에 깨닫는 말씀으로 이 때 우리 신앙의 체계가 작동을 하고 믿음이 움직여야 신앙이 잡히고 현실적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둡고 캄캄한 밤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시편105:17-22) 깊은 밤일수록 밤에 부르는 노래를 배우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이기며 인내를 이루십시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깊은 밤 더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과 같은 희망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해결됨을 믿어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2) 요셉의 새벽(41:1-45)

술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2년의 시간은 요셉의 가장 깊은 밤으로 요셉의 이른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싸인 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줄 사람을 찾다가 술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 내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술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왕은 요셉을 급히 부르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위기나 고난의 임계점이 있고 꿈과 비젼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임계점이 되어 바로가 꿈을 꾸고 술관원장이 기억해 내어 바로의 앞에 섰던 것처럼 성경과 인내와 감사로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회개와 치유로 임계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임계점까지는 30년이 걸렸지만 임계점을 이룬 후에는 한나절 만에 꿈을 이룹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홍해의 갈라짐,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 모든 것이 임계점을 이룬 후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밤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으로 임계점을 지나 새벽의 승리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며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예비할 것을 말합니다. 꿈의 사람은 꿈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찾아내고 꿈을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와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버티고 견디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답을 주십니다.

3) 요셉의 아침(41:46-57)

요셉의 꿈 해석에 감동을 받은 바로왕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버금수레를 태우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으니 감옥의 죄수가 버금수레를 타는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밤에 부르는 노래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영적 원리를 배워 천국의 버금수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굽은 요셉의 생각대로 행하여 먹을 것이 풍족했으나 다른 나라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꿈과 사명이 수천 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밤의 노래와 기도와 말씀을 배움과 한 사람의 영적인 새벽과 아침을 맞음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영적으로 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요셉 가문이 아니라 실수도 있고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은 부끄러운 족보의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가문의 비밀과 죄악까지 용서하시는 체휼하신 그 긍휼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고 유다처럼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코로나 사태의 깊은 밤을 노래와 말씀과 감사 속에서 요셉처럼 유다처럼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